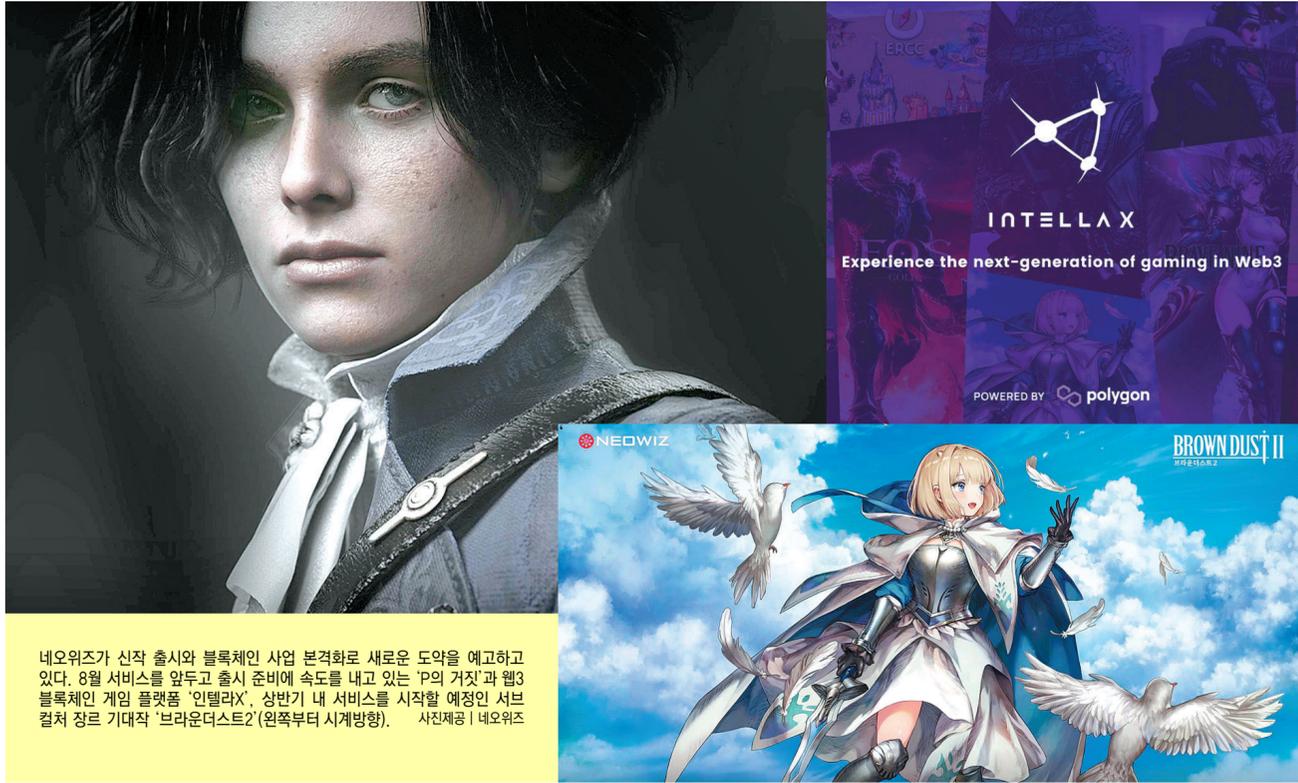


P의 거짓·인텔라X '승부수'...글로벌 공략 작전

〈소울라이크 게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네오위즈가 신작 출시와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로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8월 서비스를 앞두고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P의 거짓'과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X', 상반기 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서브컬처 장르 기대작 '브라운더스트2'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네오위즈

네오위즈가 올해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P의 거짓'과 서브컬처 장르 인기 지적재산권(IP) '브라운더스트' 후속작 등 신작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X'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도 꾀한다.

● 'P의 거짓' 8월 출시

네오위즈는 먼저 올해 최고 기대작인 'P의 거짓'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8월 출시에 앞서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외에 판로를 확보하고, 게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P의 거짓'은 네오위즈 산하 스튜디오 라운드8이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본다'는 명제 아래 2020년 초부터 개발한 게임이다. 이탈리아의 유명 영화 '피노키오'를 잔혹 동화로 재해석했다.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소울라이크 장르의 PC·콘솔 타이틀로, 큰 관심을 모은다. 무기 조합 등 차별화된 전투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세계적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2'에서 한국 게임사 최초로 3관왕을 거머쥐었고, 국내에서도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에서 업그레이드 데모버전을 공개하며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글로벌 시장 유통 경로도 확보했다. 신세계아이앤씨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 대상의 콘솔 패키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 판로 확보를 마쳤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 피아사인 게임즈와 손을 잡았다.

국내의 이용자와 소통하며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4월 10일부터 국내 이용

자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포커스 그룹 테스트'(FGT)를 진행한다. 게임 밸런스와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개발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2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GDC 2023'에 참가해 데모 버전 시연을 진행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에픽게임즈 부스를 통해 전세계 게임 개발자에게 'P의 거짓'을 소개했다. 네오위즈는 또 최근 '해피넷 게임 페스티벌 2023 봄의 경험'에 참가해 일본 시장에 P의 거짓을 처음 선보였다.

● '브라운더스트2' 상반기 서비스

서브컬처 모바일게임 '브라운더스트2'도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주류였던 미소녀 중심 서브컬처 게임은 최근 국내외 게임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브라운더스트2는 겜프스에서 개발하고 네오위즈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이다. 2017년 4월 출시해 매력적인 일러스트로 호평을 받은 '브라운더스트'의 공식 후속작이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적 분위기의 판타지 배경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모험이 재미 요소다. 기존 브라운더스트의 스타일을 새롭게 적용한 화려한

전투 연출과 하이엔드 2D 그래픽, 다채로운 일러스트가 특징이다. 네오위즈는 상반기 브라운더스트2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1월에는 구글플레이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글로벌 사전 체험 테스트'를 진행했다. 8일 동안 약 4만 명이 테스트에 참여했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저 94%가 '재미있다'고 평가하는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웹3 시대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블록체인 게임 시장 진출에도 첫 발을 댄다. 현재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X'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네오위즈의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는 싱가포르 법인 인텔라X가 폴리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유저 친화적 플랫폼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웹3 게임은 물론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보안, 인텔라X 월렛, NFT(대체불가토큰) 마켓, NFT 런치패드,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 양질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폴리곤과 에니모카, 매직에덴 등 글로벌 웹3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한 30여 개의 투자사 및 파트너사와 손을 잡았다. 게임, 플랫폼, 보안,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력은 물론, 서비스 품질과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텔라X가 이끄는 웹3 게임으로의 변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폴리곤의 '플러그인(주력) 파트너사' 자격으로 GDC에 참가했다. 인텔라X 온보딩 예정인 1인칭 슈팅 게임 '아바', '고양이와 스프' IP 기반의 PFP(프로필) NFT 프로젝트 'E.R.C.C', 다중 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에스스 골드' 등 라인업을 전시했다.

dionys@donga.com

T1-젠지, LCK 스프링 PO 승자전서 격돌

T1과 젠지가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승리하면서 승자전 티켓을 손에 넣었다. 25일과 26일 서울 종로구 톨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T1은 KT블스터를 풀세트 점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 2로 제압했다. 젠지는 한화생명e스포츠를 3대 1로 잡아냈다. T1과 젠지는 4월 1일 열리는 승자전에서 5전 3선승제 승부를 펼친다. 패자전으로 내려간 KT블스터와 한화생명e스포츠는 4월 2일 최종 결승 진출전 티켓을 놓고 5전 3선승제 대결을 벌인다.



컴투스 '크로니클' '천공의 아레나' 역대급 성적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사진)과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동시에 역대급 성적을 달성하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두 게임은 25일 기준 50여 개 지역 구글플레이 역할수행게임(RPG) 매출 순위 톱10에 동시 진입했다. 지역 또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태국, 스위스 등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다. 천공의 아레나는 지난달 말부터 대형 글로벌 지적재산권(IP)인 '어쌔신 크리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크로니클은 지난 9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됐다.



'검은사막' 신규 지역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 공개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의 신규 지역 '아침의 나라'(사진) 출시를 앞두고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새로운 영지인 아침의 나라는 기존 중세 판타지 배경이 아닌 한국의 중·근세 왕조 국가 조선을 모티브로 제작한 가상 국가로 29일 공개된다. 한국의 신화나 민담, 설화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추가된다. 이번 영상에선 김재희 총괄 PD를 비롯해 장제서·주재상 게임디자이너실장과 류휘만 음악감독 등 개발진이 출연해 개발 과정과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김 총괄 PD는 "우리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과 검은사막의 아름다운 모습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 노력했으니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28일(화) 음력: 윤2월 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피라.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때마침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날이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매사가 풍선처럼 결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금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데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는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대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달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적이고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외위의 금전 수익이 있을 수 있다.	승진 운이 있으나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바로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닭이 닭을 만난 날이다. 자중 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토끼띠성과 대화하라.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왔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내가 당할 수 있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28일(화)	
서울 30/0	인천 30/0	춘천 20/0	
4 16	5 13	0 18	
강릉 0/0	대전 30/0	전주 20/0	
5 18	2 17	3 17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4 18	4 19	8 17	
창원 0/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5 18	6 17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404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립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재무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